東友會報

發行人 鄭在哲
印刷人 李揆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267)8568
交換 (267)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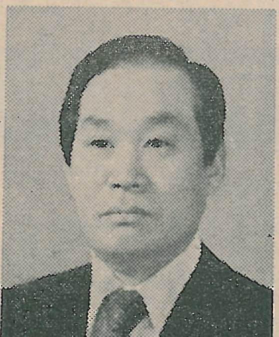
會費안내

年會費	1만원
理事會費	5만원
常務理事會費	20만원
監事會費	50만원
會長團分擔金	1백만원
廣告料	별도청구

새해 福많이
받으십시오
東國大學校 同窓會

鄭在哲회장 新年辭

內實 바탕위에 내일의 새章 열자



癸亥年의 새아침이 밝아왔읍니다。新年의 기쁨과 瑞氣가 온누리에 가득찬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本人은 먼저 우리 東國大學校의 위대함이 더욱 빛을 발하고 아울러 온 東國가족에게 끝없는 榮光과 祝福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볼때 지난1년은 世界的不況과 沈滯、국제분쟁의 와중이었으며 국내적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로 多事多難했던 한해였읍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것은 모두가 시대적 大義를 共感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에 스스로 동참한 국민총화의 結晶이며 민족저력의 승화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東國은 바로 이 안정성장에 힘입어서 민족정신을 바탕으로한 건학 정신구현에 衆智를 모아왔다고 봅니다。

우리 동창회로서도 지난 한해는 1억원의 奬學基金조성、회원명부제작、회원 개인별카드化등 內實과 발전을 추구해왔읍니다。

올해도 우리동창회는 그어느때 못지않게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읍니다。

그 첫째가 汎東國人의 장학재단설립입니다。

그동안 여러 동문들의 협조로 모금된 1억여원을 母基金으로 우선 장학재단을 설립、진리탑구에 열중하는 후배들의 면학열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읍니다。

이와함께 이 장학재단은 母校發展에 관심을 갖는 모든 동문들의 母校愛를 한데 모으고자 항시 창구를 개방、基金擴充을 꾀해 나가겠읍니다。

둘째는 동창회 活性化를 위한 內實과 조직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六萬동문의 個人別카드化를 완료하고 모든 직장·지역·학과·친목별등 단위조직과 동창회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하여 참여하는 동창회、협력하는 동창회、생산적인 동창회의 면모를 보이겠읍니다。

세째는 6萬동국인의 숙원사업인 동창회관건립을 구체화해 나가겠읍니다。

이미 본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천여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동문들의 회합·연수·결혼 회갑잔치등에 장소를 제공하여 동창회관이 명실공히 汎동창회 활동의 구심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東友會報」의 증부·증간을 통해 동국인의 우의와 가교역할을 다하겠읍니다。

다시말해 東友會報는 「동문상호간 대화와 총화의 광장」「모교전통의 확립과 傳授의 메신저」「모교와 동문의 성장과 발전의 편달자役」을 성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금년에는 회비정착화、동국인명록발간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창회가 해야할 일은 內實의 바탕위에 더욱 위대한 꿈을 펼치고 또 실행함으로써 보다나은 내일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창회의 여러가지 계속적인 사업과 새로운 계획도 동문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와 협조없이는 그만큼 알찬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교中興은 財團·학교당국의 노력과 6萬동국인들의 힘이 보태져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力量을 아낌없이 총집결、새章을 여는 主體로서 위대한 東國건설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東國人의 大同團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새해를 맞아 각계 각층에서 「나」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東國人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國大學校同窓会 新年賀禮会

◇동국中興의 결의를 다지는 신년祝賀케익커팅。

◇新年賀禮會참석자 싸인。

「偉大한東國」결의

신년하례회 열려

2백명 參席

"百年大計위해 和合精進"

本會 신년하례회가 지난 19일(水) 오후 7시 鄭在哲회장、崔載九명예회장、金殷夏국회부의장、黃壽永총장등 본회 任員및 모교간부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베서더호텔2층 西宮에서 열려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로 「도약東國」隊列에 앞장설것을 굳게 다짐했다。

뜨거운 東友愛로 百年大計의 東國中興에 더욱 정진할것을 새롭게 다짐한이 자리에서 鄭在哲회장은 신년사를통해 『모교 77주년역사의 자랑스러운 傳統위에 미래지향적이며 生命力이넘치는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어 모교침체에대한 동문들의 기우가 말끔히 씻어지는 복된 한해가되길 거듭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黃壽永총장은祝辭에서『교육시설확장、英才 육성노력으로 東大中興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모든 東國人들이 한층 힘을 모아 東國發展에 협력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金殷夏국회부의장도 祝辭에서 『최근 東國을보는 言論의 눈이 달라진데 대해 東國人간에 비판의 소리가 높은것같다』고 전제하고 『재단·학교·동창회가 三位一體가 되어 더이상의 침체에서 벗어나 우리모두 主人의식을갖고 새출발을다짐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賀禮會는 會長團이 연회장 入口에 서서 참석任員들을 환영했으며 특히 중진동문들이 대거 참석、분위기가 훨씬 화기애애했다。

南基一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하례회는 본회任員·모교간부들이 일어서서 합동인사를 나누는것으로 시작되었다。

會長人事、祝辭순서에이어 鄭회장을 비롯한 회장단、黃壽永모교총장、崔載九명예회장이 나와 새해의 동국발전 결의를 굳게다지는케이크 커팅이 있었는데 참석임원들은 박수로서 和合精進할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식적인 하례식순서가 끝나자 곧바로 축하파티에 들어가 任員들은 칵테일을 들면서 서로 신년人事를 나누느라 부산했다。

이날 모임에는 鄭在哲회장、金銀夏부의장、孟殷在 高炳鉉 愼順範 李榮一 梁昶植의원등 현직의원이 다수 참석했으며、鄭相永 金剛회장등 실업인、黃天午 金鍾聲 金定基동문등 혜화전문선배도 다수 참석했다。

尹天泳 前국장에 功勞메달

11년奉職 勞苦치하

한편 이날 하례회에서는 11년여를 본회 사무국장으로 봉직해온 尹天泳前任사무국장에게 純金 功勞메달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하기도했다。

근하신년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團一同

國會豫決委員會
委員長 鄭在哲

亞洲産業(株)
代表理事 文泰植

東洋金屬工業(株)
代表理事 洪鳳來

大韓毛紡工業(株)
會長 金聖涉

海運港灣廳
廳長 文明麟

韓國女性團體協議會
世界女性團體協議會
副會長 洪淑子

辯護士金東正法律事務所
辯護士 金東正

慧田專門大學
學長 柳周馨

大韓民國國會
國會議員 李英駿

大韓民國國會
國會議員 孟殷在

韓國保險公社研修院
院長 禹國一

新年詩

나무끼리 뿌리끼리

申庚林

교정의 나무들 서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뿌리들 얼기설기 얽혀 있다.
바람은 때로 나무를 흔들지만
그 뿌리들 얽혀 흔들림이 없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역두에서 또는 어느 선창에서,
전산기 앞에서 외진 학교 교실에서
우리는 더러는 흔들리지만
더러는 외롭고 더러는 고달프지만

얽히고 설킨 우리의
뿌리를 흔드는 바람은 없다.
어두워 오는 강의실
돌층계를 내려오며 나누던
그 체온 흔드는 바람은 없다.

을지로 사가의 전차소리
방산시장의 시끄러움
거기 섞여 먹던 몇 장의 빈대떡,
취할수록 절실해 가던 맹세
그 숨결 흔드는 바람은 없다.

돌층계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그 친구의 기쁨에 내가 취하던 날,
궂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친구의 슬픔 함께 나누던 날,
첫서리가 깔려 있었다.
낙엽 위에서 울분에 함께 뒹굴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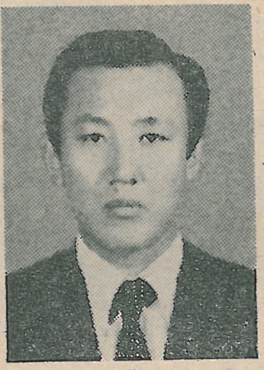
바닷가에서 산허리에서
시장바닥에서 공장에서 고층 빌딩에서
우리들 나무처럼 따로 서 있지만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잊을 것은 잊으면서 따로 서 있지만
막히고 쓰러지고 또 부러지지만

우리들 그 뿌리 흔드는 바람은 없다.
그 뿌리 얼리는 추위는 없다.
눈발은 차고 바람은 억세지만
나무는 나무끼리 서서 버티고
뿌리는 뿌리끼리 얽혀서 이긴다.

〈63영문·詩人〉

청와대 司正首席 비서관

鄭寬溶동문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풍기는 鄭寬溶동문이 青瓦臺司正首席비서관의 重責을 맡았다。

鄭寬溶(58법학) 동문이 구랍20일 青瓦臺 司正首席비서관의 重職에 취임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인상을 풍기는 鄭동문은 55년 국무원(現총무처) 사무국 수습행정원으로 출발, 23년간을 줄곧 총무처에 몸담아왔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원장으로 재직중 지난 80년5월 國保委비상대책상임委사무처장으로 제5공화국수립의 기초를 세우는데 一助를 했다。

총무처재직시엔 인사·총무·행정관리국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공직생활중 上下·左右관계가 원만하다는정평이 나있다。

剛直·能動的인 行政官僚

″각종考試合格率 높이길″

81년 大統領·국회의원 선거때는 中央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으로 兩大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크게 기여하기도했는데 그 논공으로改閣등 요직개편때마다 자주거명되기도 했다는것。

주위의 유혹에 흔들리지않는 강직한성품과 자상하면서도 능동적인 일솜씨가 크게 기대된다는게 鄭동문을 아는 주위의 衆評。

『총무처 人事파트에 있을때 의외로 모교출신 관료가 적은 것을 알았다』고 지적하는 鄭동문은『각종 고시합격율제고에 全東國人의 관심이 부여되었으면한다』고바랜다。

또한『모든 동국인이 사회에나가 동국인임을 떳떳하게 자랑토록 학창시절엔 면학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부인 崔孝順여사(42)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있으며 운동을 좋아하며 테니스는수준급。古典음악에도 남달리조예가 깊다。

금년부터 年會費 1萬원으로

″각종會費납부에 率先해주길″

본회는 會長團의 결의에 따라 금년부터 동문들이 1년에 내는 年會費를 회원1인당 1만원으로 인상했다。그러나 상무이사와 이사들의 임원 회비는 종전대로 상무이사 20만원、이사 5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본회는 동창회관 건립등을 위한 會기금조성、후배장학사업 확대등을위해 작년부터 年會費인상안을 논의하여왔는데 금년부터 年會費만 인상키로 최종결정했다。

본회는 지난해 年會費납부실적이 예상외로 저조한점을 감안、금년부터는 모든 동문들이 1년에 한번 내는 年會費를 빠짐없이납부토록 알바이트학생순방등 적극활동을 벌일방침이다。

한편 직장·지역동우회에서는 각단위별로 단체회비를 납부해줄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개인별 회원카드에 회비납부사항을 낱낱이 기록하여 연구보관한다。

61年 經濟學科 회장에 金壽煥동문

61년 經濟學科동기회(회장=金炯成) 정기총회가 지난 12月17日 오후8시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金壽煥(ATA여행사대표) 동문을 선출했다。

3명에 名博학위

外國人 2·內國人 1명등

◇Daught中將

◇金淳植박사

모교는 최근 韓美연합야전군사령관 James B D-aught중장과 比노동성장관 Blas F·Opel씨에게 각각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전국대부총장 金淳植씨에게는 명예理學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제임즈 B 도우트장군에 대한 명예법학박사학위수여식은 지난 1月11日 오전10시 교수세미나실에서 거행되었으며、브라스 B 오플長官에 대한 명예法學博士학위 수여식은 25일 오후2시에 있었다。

한편 金淳植씨는 한국물리학계발전과 후진양성및 학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구랍 6일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각종 會費납부자 명단

◇常務理事會費

▲尹鎰均	(69행원)	=20만원
▲黃龍雲	(54경제)	=″
▲禹鍾植	(52경제)	=″
▲南相龍	(49사학)	=″
▲趙熙榮	(63경영)	=″
▲柳根昌	(50문학)	=″
▲金翰周	(73대원)	=″
▲柳永相	(52영문)	=″
▲張亨植	(60정치)	=″
▲許文秀	(57경제)	=″
▲金遺腹	(51정치)	=″
▲朴殷奎	(61정치)	=″
▲鄭相永	(70경영)	=″
小計		=2백60만원
累計		=7백85만원

◇理事會費

▲金鍾一	(58법학)	=5만원
▲鄭求徹	(59정치)	=3만원
▲李仁禎	(72상학)	=5만원
▲曺 奎	(77경원)	=″
▲韓憲錫	(78경원)	=″
▲李光載	(45혜전)	=″
▲權奇悰	(64불교)	=″
▲李泳和	(54법학)	=″
▲黃帝周	(43혜전)	=″
▲申年秀	(65경제)	=″
▲金容聖	(63정치)	=″
▲金北喆	(62정치)	=10만원
▲愼順範	(61정치)	=5만원
▲李正翼	(78행원)	=″
▲高炳鉉	(59경제)	=″
▲盧武植	(78행원)	=″
▲權錫忠	(70정치)	=″
▲朴正永	(67정치)	=″
▲印丁一	(72행원)	=″
▲蔡尙謙	(64정치)	=″
小計		=1백3만원
累計		=5백67만원

◇年會費

▲東亞製藥	(鄭聖采등14명)	=7만원
▲韓國道路公社	(尹仁相등20명)	=10만원
▲卞泰源	(63법학)	=2만원
▲李裕寬	(66국문)	=1만원
▲玄海天	(75행석)	=″
▲朴性茂	(68정치)	=5천원
▲吳漢喆	(60경제)	=″
▲李海寅	(63경제)	=1만원
▲申正哲	(67경영)	=″
▲배장렬	(73경제)	=5천원
▲任世榮	(56경제)	=1만원
▲鄭仲鎬	(77무역)	=5천원
▲高在勇	(80화학)	=″
▲高光奎	(61물리)	=1만원
▲趙錫奎	(78국문)	=5천원
▲李종선	(62국문)	=1만원
▲오종현	(77행원)	=5천원
▲金元翼	(62영문)	=″
▲吳秉勳	(63법학)	=1만원
▲全燦佑	(58정치)	=5천원
▲宋法摩	(72행정)	=3만원
▲趙弘奎	(64정치)	=5천원
▲林錫	(65상학)	=″
▲황의갑	(81경원)	=″
▲宋仁憲	(58경제)	=″
▲金永常	(63법학)	=″
小計		=37만원
累計		=7백6만원

회장단 年賀狀

1천여명에게 發送

本會에서는 癸亥新年을 맞아 會長團명의의 연하장을 제작、본회 임원 東國人의 밤 참석자、母校간부등 1천여 東國人의에게 발송했다。新年을 맞아 東國人의 긍지를 살려 더욱 정진할 것을 기원한 이 연하장은 新藥講義棟건물 전경을 美術科 金榮華교수가 수채화로 그린것이다。

근하신년

大韓民國國會

副議長 金殷夏
豫決委員長 鄭在哲
農水産委員長 李範俊
議政同友會長 黃明秀
國會議員 金遺腹
國會議員 李英駿
國會議員 高炳鉉
國會議員 林德圭
國會議員 孟殷在
國會議員 朴翊柱
國會議員 愼順範
國會議員 金榮龜
國會議員 李元範
國會議員 趙炳鳳
國會議員 李榮一
國會議員 梁昶植
國會議員 李憲琦

진한東友愛 母校中興에 쏟기로

「東國人의 밤」盛況裡 마쳐

滿員·熱氣가득…1천여명 參席

제11회「東國人의 밤」이 구랍17일(金) 오후6시30분 京鄕각지의 1천여 동문이 운집한가운데 앰배서더호텔2층 대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鄭在哲회장, 崔載九명예회장, 洪鳳來 文泰植 金聖涉 金東正 柳周馨 孟殷在 禹國一 洪淑子부회장, 趙明基, 金東益前총장, 李東林대학원장을 비롯한 모교 학처실장등 모든 東國가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母校愛를 바탕으로 東國中興에 적극 동참할것을 다짐했다.

南基一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회장人事, 祝辭, 회장단및 모교간부소개, 새해결의문채택, 축하패수여, 장기자랑, 행운권추첨순으로 진행되어 시종 모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충만했다.

◇제11회「東國人의밤」이 구랍17日 앰배서더 2층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祝賀者席표정)

이날 축하패는 지난 1년동안 각계각층에서 東國의 명예를 떨친 동문과 우수지부·지회에 각각 수여했으며 前任사무국장 尹天泳동문에게는 공로패를 수여,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는 모교 카렌다와 기념타올을 각각 선물했다.

〈관계記事4·5面〉

住宅銀 임원개선

회장에 鄭豪鎭동문

◇鄭회장

한국주택은행동우회(회장 白南伸) 정기총회가 지난14일오후7시 뉴국제호텔 중국관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鄭豪鎭동문을 선출했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鄭在皓(東京사무소) 閔浩根(호주이민) 동문의 환송회를 겸했는데 회원들은 동국인의 긍지로 자기발전과 우의를 더욱돈독히 해나갈것을다짐했다.

▲회장‖鄭豪鎭(60경제·면목동지점장) ▲부회장‖宋祥鉉(58수학·天安지점장) 宋寬憲(62법학·감사실차장) ▲총무‖金秀三(65경영·영업2부차장) ▲부총무‖姜德光(69경제·심사2과장)

太平洋화학 定總

신임회장에 李能熙동문

◇李회장

太平洋化學동우회(회장‖李秉玉) 정기총회가 구랍7일 오후7시 시내남영동미성회관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李能熙 동문을 선출했다.

그룹산하 재직동문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회원간의 우의증진과 支會활성화방안을 논의한뒤 여흥을 즐겼다.

▲고문‖禹鍾植('52경제·태평양개발社長), 李秉玉(59경제·태평양개발 전무이사), 李炳華(64정치·태평양팻숀 전무이사) ▲회장‖李能熙(65상학·경리상무) ▲부회장‖徐晶洙(68정치·연수1과장) ▲총무‖張世煥(74경제·심사분석과주임) ▲감사‖金英男(71상학·회계관리과장)

曺重根동문

회계사반에 金一封

曺重根(65상학·韓元회계법인 會計士) 동문이 모교 경영대학원에서 지난학기강사료로 받은 24만7천2백원을 모교 회계사반 육성에 보태써달라고 본회사무국에 기탁했다.

본회 康鎭元사무차장은 성금을 모교 회계사반 지도를 맡고있는 尹鍾安교수에게 직접전달하는 한편, 회계사배출을 위해 더욱 힘써줄것을 당부했다.

電算科 2대任員陣 구성

住所錄발간·장학사업등추진

電子計算學科동창회(회장‖이관용) 제2회 정기총회가 지난해 11월27일 열려 2대회장에 함경수(1기·東大전산원專講)동문을 선출했다.

지난 76년 첫졸업생을배출한 電算科의 이날 총회에서 신년 사업계획으로 주소록발간, 장학사업, 체육대회및 망년회개최, 동창뉴스 발간등을 확정했다.

◇2대임원 명단

▲회장‖함경수 ▲부회장‖신헌찬(2부1기·한국증권전산), 장철수(1부2기·한국전력) 한민수(1부1기·제일은행) 윤동기(1부3기한국증권전산) 김진만(1부4기·고려시스템) ▲감사‖이창길(2부1기 의료보험공단) 입명균(1부4기·제일은행) 이태경(1부·2기)

國史教育科 定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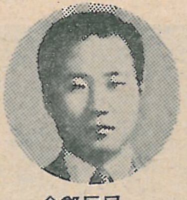
恩師논총발간논의

國史教育科동창회 82년정기총회가 구랍18일 오후5시 퇴계로 대림정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82년주요사업보고에 이어 素軒 南都泳교수회갑논총발간에 따른 준비사항등을 토의했다.

鄭相永동문 1千萬원

장학기금 곧 1億달성



◇鄭동문

金剛(株) 회장 鄭相永(60경) 동문이 구랍27日 특수장학기금 조성운동에 호응, 1천만원을 協贊했다.

『우수한 후배양성을위한 선배들의 意志가 全東國人에게 번져 東國中興의 계기가되었으면한다』고 밝힌 鄭동문은 지난해 모교講義棟을 지은바있으며 모교후문을건립, 회사하기도했다.

金剛(株)·高麗化學(株) 대표이사회장인 鄭동문은 산업역군으로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있다.

한편 鄭동문의 장학기금 협찬으로 총기금액은 9천5백만원이 되었다.

經營學科

오는28日 定總개최

經營學科동창회(회장 李昌圭) 제6회 정기총회가 오는 28일(金) 오후7시 모교 다향관 교수식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定總은 신년相見禮에 이어 후배장학기금조성 등 주요 신년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게된다.

數學科 선후배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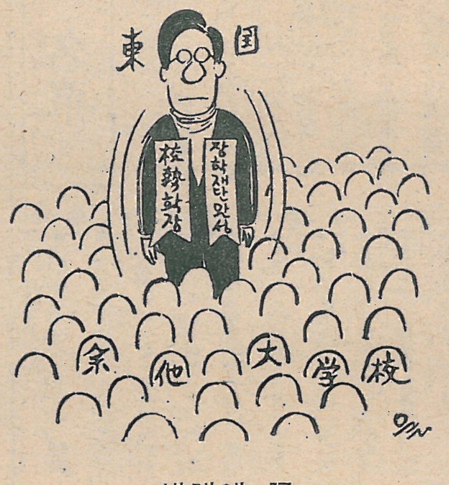
奬學基金 擴充등 신년事業논의

數學科동창회(회장 鄭址鎬)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후 3시 모교과학관1층 수학과 실습실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열려 장학기금모금안등을논의했다.

선배·졸업예정자간담회를 겸한 이날모임은 일부회칙 보완에이어 연회비를 1만원으로 인상키로하는 한편 수학과 발전을위한 제반의견을 나누었다.

東友漫評

鄭雲耕



새해엔 꼭…

主人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모두 主人意識다짐하고 中興의 땀 흘려야

崔淳烈

〈72國文·詩人·모교韓國文學研究所研究員〉

首邱初心이라 어찌 제 모교에대한 사랑이 개인에따라 等이 있으리오마는 가끔 사회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東國人임이 사뭇 면구스러울때가 있음에랴. 내세워 자랑하고픈 일이 숱하다하더라도 어쩌다 한둘의 어줍잖은 티가 남달리 가슴 아픈 까닭은 그것이 사소한 배려만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고, 또한 事後라도 곧 회복될수 있는것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失手(?)가 누적되어 나갈때 우리 東國의 영광은 서서히 이끼가 끼는 법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직 가끔 흘보이는 東國의 얼룩을 아직도 어떤 失手이거니 자위해보지만 한점 얼룩의 是非는 접어두더라도 내세워 펼칠 더높은 기세마저 짐짓 뭉개고 주저앉는 나태의일면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사뭇 곤혹스럽다.

77주년의 전통 속에 그 많은 영광을 누려온 우리 東國이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은 한때의 臥龍으로 애써조치하고 말것인가. 이제 눈 뜨지 않으면 영구히 깨어나지 못할 것같은 안타까움은 잔망스러운 기우는 아닐 것이다.

學問의 바다에 도도히 넘실거리던 高邁의 학자들, 政經界에 우뚝하던 기라성들, 문화계를 누비던 그 숱한 별들, 운동장에서 용맹스레 함성지르며 내닫던 건아들, 이 긍지를 끝내 지켜야 하는 노력을 얼마만큼 어떻게 기울여 왔던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타의 대학에서는 제나름의 교세확장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만 지난날의 명성만을 가까스로 빌미삼고 억지로 태연한, 여유 아닌 무사안일의 늪에 잠겨있어서는 안된다.

동국의시계는 과연 몇시를 가리키고있나. 아니 숫제 멈추고있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태엽을 바짝감고 숫자판을 선명히닦고 作之不己의 전진을 약속하자. 먼저 왜 이러한사태에 봉착하고말았는지 자신을 점검해야겠다. 이위기를 과감하게 극복하고나설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일찌기 우리동국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겠다는사명의식을 투철히지닌 주인이 과연있었던가보라. 하구의 자욱한철새도 제철이 지나면 훌훌이떠나가는법, 다만 몇낱의깃털이나 때로는 오물까지 남기고날아가버린다.

우리 동국은 바야흐로 분발과 도약의 절대적 지점에 서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다짐하고 팔을 걷어부치고 땀을 좀 흘려보자.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이런 점검을 해볼필요가 있겠다.

첫째, 학생들은 더욱 학문에 정진해야 하겠다. 자기의 학력을 획득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방편으로 학교를 생각하는 옹졸함은 없는가. 학교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학생자신의 노력여하에 좌우된다. 면학자세를 더욱 높이는 일이 우선임을 명심해야겠다.

둘째, 教授들의 責務 수행에 어떠한 부실이 없었던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고 保身에만 급급한적은 없었던가. 이곳에 나의 신명을 바치고 나의學問을 송두리째 接脈시키겠다는 學者的 良心이 잠깐이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勉勵의 힘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셋째, 學事 집행을 맡은 學校當局은 과연 앞서 요구된 學生과 教授의 자세에 십분 박차를 가할수있고 뒷받침하는 일에 게으름이나 부족함은 없었던가. 위로는 總·學·處長에서부터 직접窓口에서 일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東國의영원한 영광을 한시라도 놓치고 한낱 일신의안존을위해 방심한적은 없는가.

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에 東國이라는 大前提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소신을 가지고 東國의 밑거름이되겠다는 각오로 매사에 희생적인 봉사의 자세로 일해야하겠다.

넷째, 東國을 어머니로삼은 6만東國人은 모교를위해 무엇을 해야하겠는가. 다만 東國의그늘에서 자신의 日常事만에연연해하는지 모를일이다.

또 자기이익에 결부된 입장에서만 東國을 들먹이고 東國의 어려움에 내한몫을 외면한 일은 없었던가. 동창회를중심으로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심의 苦心을 한번이라도 해보자. 뒷전에서 탓만하지 말고, 내 직장에서 내가정에서 東國의 얼을 새삼되새기고, 77년전통의 역사위에 놓인 엄연한 자기좌표에 책임을 절감해야 하겠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東國人의 총화가 이루어질 때 꿈틀거리고 있는 동국의 용암은 힘차게 분출될것이 분명하다.

자, 오늘의 東國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해서 낙심만 하고 한숨만 쉴 일이 아니다. 길은 어디에도 있다. 주저없이 그동안의 우리가 암암리에 저질러온 무관심과 현실안주에서 벗어날 몸부림을 쳐야 한다. 언젠가 동국이 지켜온 진리의 성화가 그야말로 온 누리를 비추어 명실공히 학문 전당의 선두 주자가 되는 날, 우리 모두가 주인이었던 자부심으로 원무를 추어보자 얼씨구 좋구나, 우리 남산 코끼리—.

립… 雄飛東國에 協力다짐

각계각층 同門 1千餘名 雲集

東國人들의 가슴은 뜨거웠다。마주하는 얼굴마다 피
오른 웃음꽃들。굳게 잡은 손길마다 흐르던 意
는 내일의東國을 다짐하는 大和合의 열기가 되어
理의 터전 南山 기슭을 불태웠다。「故鄕중의 故
」모교 東國의 이름아래「제11회 東國人의 밤」큰
치에모인 1천여 同門들은 서로의 의기를투합, 가
과 가슴으로 여울지는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
精進하는 코끼리의 기상을 마음껏 발휘했다。또
開校 77주년을 맞는 83년도는 보다 새로운 각오
同窓會와 母校 발전을위해 너나없이 초석이 될
을 다짐하면서 희망에 찬 출범의 돛을 높이 올렸다。

母校·財團·同窓會 三位一體 이뤄야

奬學基金 擴充·회관 建立同參 결의

영원한마음의등불 東國|。동국인의우정과단결, 애교심을 불러일으킨 제11회「동국의밤」이 열린 구랍17일의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은 경향각지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동국인들로 인산인해를이뤄 동국인의저력을 마음껏과시한 자리였다。

이날모임에는 鄭在哲회장을비롯한 회장단과 모교간부, 趙明基·金東益전입총장, 각계각층의 중진동문등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이루었다。

◇회장단 入口서환영

연회장入口에서는 會長團이 일일

축하패수여, 새해결의문채택, 鄭在哲회장人事, 東國中興케익커팅, 長技자랑, 幸運券추첨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 한해는 國家的으로 政治·經濟的안정을 이룩했고 모교와 本會도 내실을 꾀해왔다。새해에도 東國人모두가 東國중흥과 국가사회발전의 견인차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李東林대학원장은『모교가 대학의 大型化·多元化시대에 대처하

했다。

이어 南基一사무국장은 東國人名錄작업, 회원개인별카드化등 주요회무를 보고했다。

◇새해결의문3개항채택

이자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더욱 精進하는 새東國人像정립을결의하는 3개항의 새해결의문을 孟殷在부회장이 선창, 참석동문들의만장일치박수로 채택했다。

어 鄭在哲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崔載九명예회장 趙明基·金東益전입총장, 李東林대학원장등이 나와「東國中興」이 새겨진 축하케익을 자름으로써 뜨거운열기의 本연회가 시작되었다。

本연회는 칵테일을 들며 오랫만에 만난 동창, 선후배, 은사등과서로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영원한 東國人임을 재확인하기에부산했다。

人氣연예인 李德華사회로 장기자랑 시간가는줄몰라

선후배가 어우러져 MBC-TV 인기탤렌트 李德華동문의 사회로이어진 장기자랑은 장기자랑 申請者쇄도로 다소 혼란이 일기도했는데 鄭在哲회장夫婦, 崔載九명예회장, 愼順範의원, 朴來春 李耕薰 辛翔教 邊永傑 朴熙萬 金京南동문등이 나와 기성가수나 연예인들을 빰칠정도의 장기를 보여주어 참석동문들의 흥을 돋구었다。

◇행운권추첨에 관심집중

칼라TV등 2백여점의 푸짐한행운상품을 놓고 연회무드가 무르익으면서 장기자랑 중간중간에 진행한 행운권추첨은 당첨자번호가 호명될때마다 기쁨을 억누르지못하고 탄성이 터졌으며, 어떤 동문은·얼큰해진술기운에 카드에 쓰인번호가 당첨번호가아닌데도 당첨번호로 착각, 시상대까지 나왔다가 씁쓸이 되돌아가는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칼라TV등 경품푸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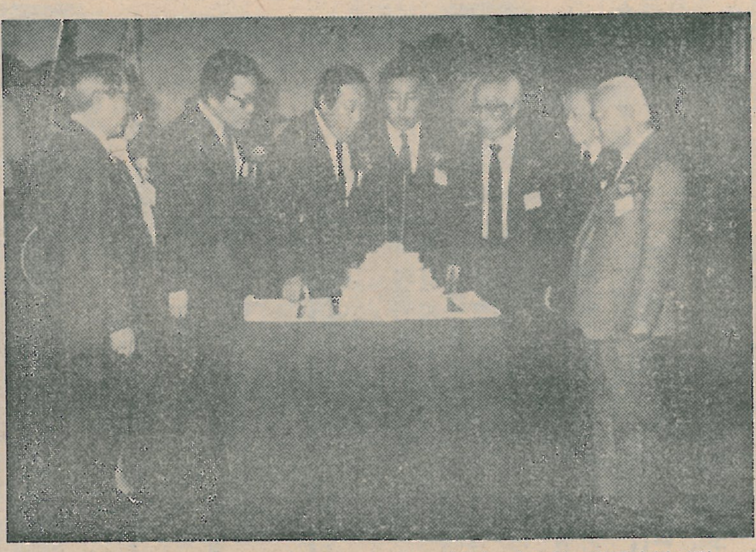
이날 행운상품은 본회임원, 모교간부, 각급단위동우회에서 TV 자전거 양복지 시계 비데오학습테프등 총2백여점이 답지했으며 최고행운상인 14인치 칼라TV는 鄭在哲회장이 직접추첨끝에 胡敎純(75농화·상지대교수)에게 돌아갔다。

黃壽永총장상은 吳益壽(70경영·동아제약)동문이, 崔載九명예회장상(친필휘호액자)은 고명수(79국교)동문이 각각 당첨의영광을안았다。

한편 행운상품추첨시간을 줄이기위해 現金협찬분은 모든참석자들을위한기념타올을제작, 선물했는데도집행부에서는 행운상품처리에 골치를앓기도했다。

◇地方·女性동문대거참석

이날 행사에는 濟州大총장 玄平孝동문, 부산지부 邊永傑 辛상敎동문, 長城 朴來春동문, 東草 金完植, 大田 朴承熙동문등 地方동문과 여성동문들이 대거참석했으며, 大邱지부장 全泰成, 전남和順신농중학교장 李政龍, 남한중고교장 李光薰동



◇東國中興케이크커팅 (左로부터 文泰植 洪鳳來부회장, 鄭在哲회장, 崔載九명예회장, 李東林대학원장, 趙明基·金東益前총장)

◇宴會場단상과 任員席

東國을 빛낸 동문들에게 祝賀牌를 수여하고있다。(사진은 博士학위취득동문들)

榮譽의 祝賀者 名單

◇感謝牌

▲柳根昌(50전문)=특수장학기금협찬
▲禹順伊(60정치)=〃
▲朴埈亨(63경제)=〃
▲黃慶石(73행원)=〃
▲鄭相永(60경)=모교후문건립비 희사
▲朴桂山(77행원)=고시반장학사 건립비 희사
▲李乘武(66농경)=경주대장학금 희사

◇功勞牌

▲尹天泳(66농학·前본회사무국장)=동창회 活性化기여(11년근속)

◇優秀東友會표창

(괄호안은 표창받은회원)
▲釜山지부(회장 金容彩)
▲仁川지부(부회장 趙炳鎬)
▲韓國投資信託(회원 鄭龍談)
▲信用保證基金(회장 鄭求徹)
▲農學科(부회장 朴贊大)
▲蹴球部後援會(회장 閔容植)

◇榮進·當選

▲玄平孝(51국문)=제주대총장취임
▲朴魯榮(58경제)=육군대장진급
▲崔榮載(52정치)=한영중교장취임
▲洪淑子(55정치)=세계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 피선
▲柳周馨(57농학)=慧田전문대학장취임
▲南時奕(58정치)=관악세무서장취임
▲金洛賢(62법학)=여수경찰서장취임
▲曺聖彬(64법학)=용인경찰서장취임
▲張泳俊(64법학)=설악파크호텔사장취임
▲李肯珪(65법학)=국제기자연맹부회장 피선
▲高光允(65농학)=상공부새마을연수원장취임

◇博士學位취득

▲安채蘭(54국문)=美골든스테이트大 명예문학박사
▲金利泰(61농학)=동국대 經濟學박사
▲李永子(63불교)=日本大正大文學박사
▲趙炳贊(63농학)=동국대經濟學박사
▲李東科(64법학)=연세대 法學박사
▲康勝彦(65물리)=동국대 理學박사
▲鄭奎完(65경제)=美유니온大經濟學박사
▲金吉煥(65식공)=동국대 工學박사
▲金榮順(69화학)=日本東海大工學박사
▲邊光義(71식공)=獨본대학理學박사
▲姜泰遠(73물리)=동국대 理學박사
▲李起彬(78경원)=美유니온大經營學박사

◇각종 褒賞

▲禹德水(39中佛)=국민훈장동백장
▲金濟東(43혜전)=〃
▲李在福(43혜전)=〃
▲鄭根謨(44혜전)=〃
▲崔載浩(54국문)=〃
▲權守源(54사학)=〃
▲吳仁均(79행원)=〃
▲金在남(모교교수)=〃
▲安文玉(55영문)=국민훈장목련장
▲朴養源(48전문)=산업포장
▲김성배(52국문)=제16회 대한민국교육사회문화상
▲沈載益(64농학)=새마을훈장노력장
▲李興南(65정외)=제1회공업표준화우수상
▲閔鉉哲(69국문)=제1회대한민국사진전大賞
▲鄭鎔範(경행2년)=제9회아시안게임 복싱金메달
▲金鍾奎(체교4년)=제9회아시안게임 레스링銅메달

◇考試·會計士시험合格

▲朴昇圭(77법학)=司法시험합격
▲丁滿鎭(78법학)=〃
▲鄭泳德(79법학)=〃
▲金東雨(82법학)=〃
▲李洙哲(대원)=〃
▲강창원(행원)=〃
▲朴五淳(79법학)=軍法務官시험
▲李堯欽(행원)=〃
▲丁大鎭(회계4년)=회계사시험
▲張賢基(경영3년)=〃
▲李昌熙(경제2년)=〃

◇會議場全景 회의장中央에 모교의상징인「코끼리상」얼음조각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不死鳥的 東國魂재 정립…

제11회 東國人의 밤 詳報

京鄕各地 각

東國人들의
어 오른 웃
志는 내일의
眞理의 터전
鄕」모교 東
잔치에모인
슴과 가슴으
고 精進하는
한開校 77주
로 同窓會와
것을 다짐하면

각종幸運賞品 푸짐…長技신청 쇄도

깊은 友情과 團結·愛校心 場內 넘쳐

이 악수로서 참석동문들을 따뜻이 맞아들였으며, 연회장에는 교가·응원가가 스피커를통해 은은히 울려퍼져나와 더욱 모교에의 향수를 느끼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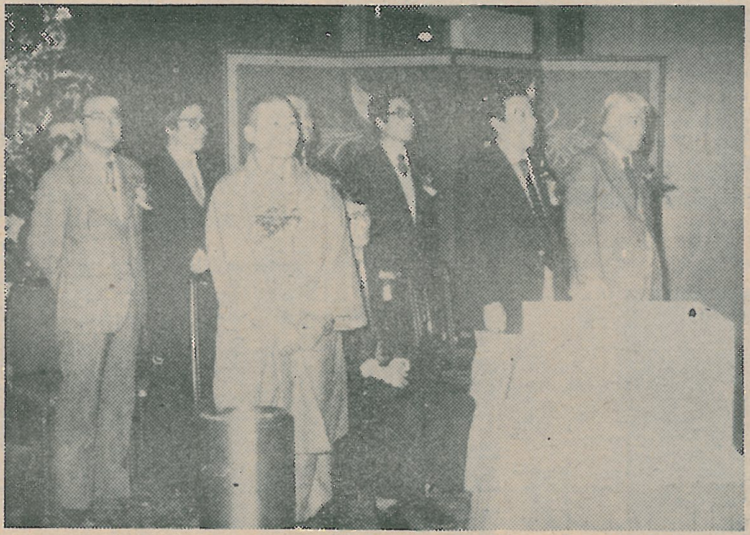
또 연회장 中央에는 아이스조각물인 모교의 상징「코끼리상」이 우뚝서서 東國人의 의연한 기상을 일깨웠다.

南基一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회의는 국민의례, 개회사(洪鳳來부회장 대독) 李東林모교대학원장의 축사, 會長團및 모교간부소개

기위해서는 보다많은 財力과 努力습기가 요구된다. 학교당국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동문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장단·母校간부소개

이날 회장단및 모교간부소개는洪鳳來부회장이 회장단을, 李東林대학원장이 모교학처장을 일일이 소개



◇모교幹部소개 (左로부터 金長好사대학장, 趙熙榮총무처장, 李智冠불대학장, 河德模기획실장, 崔世和교육대학원장, 鄭允武행정대학원장, 錢昌源경영대학원장)

東國人의 새해 결의

우리 東國人 모두는 온갖 歷史的 激動과 哀歡을 함께하며 敎育救國과 民族文化의 暢達·人類福祉向上에 創造的 기여를 다해왔다.

우리 東國人 모두는 開校77주년의 새해를 맞으면서 學校·財團·同窓會의 和合團結을 통해 三寶의 淨財로 創學된 民族私學의 崇高한 理念을 具現, 昇華시키고 나아가 東國中興에 앞장설것을 굳게 결의한다.

一、우리 東國人 모두는 大我精神과 護國思想으로 일관해온 不死鳥的 東國魂을 再定立, 國家社會와 東國의 發展이 우리의 發展임을 굳게自覺하고 그使命感을 더욱 드높힌다.

一、우리 東國人 모두는 東國77주년의 歷史와 傳統을 오늘에 승계, 創造的 意志를 發揚하여 安逸과 沈滯에서벗어나 主體意識化로 참된東國中興에 總力을경주한다.

一、우리 東國人 모두는 스스로가 選擇한 學緣을 긍지삼아 同門間의 友誼증진과 함께 奬學基金擴充, 同窓會館건립, 母校發展등을 위하여 大悟精進할 것을 闡明한다.

◇宴會場入口에서 참석동문들을 환영하고있는 會長團。

◇宴

◇총64명에 祝賀·功勞牌

곧이어 東國을 빛내준 동문축하회순서에서는 모범동문7명, 우수단위6개, 영전·취임 11명, 박사학위취득 12명, 각종 포상16명, 고시·회계사합격 11명과 본회 전임 사무국장 尹天泳(66 농학)동문에게 각각 축하패및 공로패가수여되었다.

축하패는 鄭在哲회장을 비롯, 文泰植 洪鳳來 金聖涉 金東正 柳周馨 孟殷在 禹國一 洪淑子부회장등이 나와 각각 대상자에게 수여하고, 동국인의 명예를 진작시킨 동문들을 치하했다.

◇前총장등에 선물증정

한편 趙明基·金東益 두 前총장과 崔載九명예회장에게는 근하신년선물을 증정, 위로하기도했다.

◇東國中興케이크 커팅

회의순서를 마친 이날행사는 이

◇장기자랑을마친 愼順範의원夫婦가 행운권을 추첨하고있다。右側은 장기자랑 사회를맡은 인기 탈렌트 李德華동문。

◇東國을 빛낸
진은 博士학

植、大田 朴承熙동문등 地方동문과 여성동문들이 대거참석했으며, 大邱지부장 全泰成, 전남和順신농중학교장 李政龍, 남한중고교장 李光燕동문으로부터『東國의 나무에 두루 깊은 뿌리 내리옵소서』라는등의 축하전문이 답지하기도 했다.

◇명함교환·사진촬영바빠

이날 장기자랑, 행운권추첨을 하는동안 오랫만에 만난 동문들끼리서로 명함교환과 기념사진 찍기에바빴으며, 준비된 음식은 일찌 바닥이 났으나 모두들 자리를 뜰줄모르며 훈훈한 東國人의 정을 두텁게했다.

◇校歌 우렁차게合唱

밤9시반. 마지막 東國人의 열기가 넘쳐났다.

참석동문들은 내일의 밝은 東國을 기대하며 우렁차게 校歌를 제창했다.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한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큰광명 큰지혜 큰힘으로/누리의 어두움 밝히노니/우러보라 진리의동산/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가슴마다 높푸른 이상/오직 의기에 찬 젊은모습/이땅에 새역사를 창조하리라/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이 땅에 새역사를 창조하리라』

◇아쉬운作別, 내년기약…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내일의영광을 다짐하는 우의의 광장으로서 모교발전을 힘차게 밀고나갈 결속의 터전으로서「東國人의밤」은 東國人의 기개와 저력을꽃피우는 대합창으로 힘껏 울려 퍼진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幸運賞品 協贊내역

◇個人別 協贊

▲鄭在哲회장=칼라TV
▲崔載九명예회장=친필휘호액자
▲文泰植부회장=자전거
▲金聖涉부회장=양복지2벌
▲孟殷在부회장=벽시계
▲禹國一부회장=가정용품세트
▲金寬性(48전문)=金一封
▲柳根昌(50전문)=금일봉
▲金遺腹(51정치)=설록차세트
▲李昌根(51정치)=가정용품세트
▲金殷夏(52정치)=벽시계
▲洪淳池(52정치)=금일봉
▲禹鍾植(52경제)=치약1박스
▲趙秉成(52경제)=가정용품세트
▲金準鏞(53경제)=매일크리프2박스
▲安채蘭(54국문)=금일봉
▲黃龍雲(54경제)=가정용품세트
▲李泳和(54법학)=책
▲林 和(55법학)=벽시계
▲徐昌河(57법학)=석유난로
▲崔春芝(57법학)=금일봉
▲安鍾振(58영문)=〃
▲平福昌(58정치)=카세트라디오
▲朴忠煥(59경제)=금일봉
▲金鍾旭(60생물)=이동식서랍장
▲禹順伊(60정치)=금일봉
▲韓相根(60정치)=서화 액자2·의약품5점
▲朴翊柱(61정치)=럭키선물세트2점
▲金銘善(61경제)=카페트
▲朴忠一(62법학)=金一封
▲裵鍾大(62철학)=피크닉·자
▲金榮煥(62경제)=화장품10세트
▲金正雄(63법학)=金一封
▲李炳華(64정외)=스타킹세트10점
▲金益相(65법학)=金一封
▲李興南(65정치)=金一封
▲李昌圭(65경영)=고급주방용품
▲金弘模(66상학)=金一封
▲成百幸(66경영)=삐삐주전자
▲鄭在琪(63정외)=삼푸·린스세트5점
▲吳益壽(70경영)=고려강정
▲金完植(71농학)=수산물세트2점
▲金良灝(72법학)=비데오英語학습세트
▲宋進(75공경)=칼라사진촬영권2매
▲金翰周(73대원)=디지탈
▲朴桂山(77행원)=커피세트

◇單位동우회協贊

▲法學科(金東正)=金一封
▲61년政治科(朴殷奎)=벽시계
▲東松會(柳汀宇)=벽시계
▲東女會(金貞愛)=석유난로
▲東國山岳會(崔榮植)=벽시계
▲農協(沈甲植)=金一封
▲東亞그룹(金有一)=벽시계
▲國會(金殷夏)=벽시계
▲信用保證基金(鄭求徹)=金一封
▲太平洋화학(李能熙)=린도샴푸세트10점
▲한국상업은행(許文秀)=벽시계
▲한국투자신탁(李義邦)=벽시계
▲미룡건설=벽시계
▲철도청=가정용품2점
▲한일은행=석유난로
▲해태제과=양주선물세트3점
▲한국맥네일=담요

◇모교幹部協贊

▲黃壽永총장=金一封
▲朴淇宗재단이사장=가습기
▲李東林대학원장=金一封
▲鄭允武행정대학원장=〃
▲錢昌源경영대학원장=〃
▲崔世和교육대학원장=〃
▲李智冠불교대학장=〃
▲閔泰원문리과대학장=〃
▲閔丙天법정대학장=〃
▲韓炫경상대학장=에어포트
▲金興培농과대학장=벽시계
▲金直泰공과대학장=〃
▲金長好사범대학장=금일봉
▲金鍾遠2부대학장=시계
▲金鎔貞기초과정부장=금일봉
▲趙熙榮총무처장=〃
▲金翔圭교무처장=〃
▲朴先榮학생처장=〃
▲河德模기획실장=〃

각급 單位別 年末모임 풍성

東國人의 긍지와 使命感 재확인

行政大學院

行政大學院동문회 82송년의밤이 구랍15일 오후6시30분 孟殷在회장을비롯 李英九 禹國一 朴桂山부회장등 1백여명의 회원과 모교 鄭允武원장등 재직교수 다수가 참석한가운데 모교 다향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孟회장은 인사에서『우리 행정대학원 졸업생의 긍지로 새해에도 변함없이 전진과 내실을 추구해나가자』고 역설했다。

玄海天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경과보고 鄭원장 인사、朴謹浩학감의 재직교수 및 참석동문소개가 있었으며、이어 강의동 책걸상기증등의 협조사항을 공지한뒤 연회를 즐겼다。

經營大學院

經營大學院동창회(회장=金完基) 東國人의 밤 행사가 구랍15일오후7시 시내 필동 소재「한국의집」에서 열렸다。

金회장을 비롯 1백여명의 회원、모교 錢昌源원장등 재직교수다수가 참석한이날 모임은 장기자랑 행운권추첨등의 순서로 열렸으며 새해에도 동국경영인의 긍지로 會活性化와 모교발전에 적극동참할 것을 굳게 결의했다。

한해 회포풀며 友誼 돈독히 다져

景品추첨·長技 자랑등 多彩로와

基金造成등 단위 活性化를 다짐

대부분 家族同伴…東國熱氣 가득

釜山支部

부산지부(회장=金容彩) 정기총회겸 82동국인의 밤 행사가 구랍16일오후6시30분 부산시내중심가 제일예식장 2층홀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총무담당 부회장 高홍錫(59정치)동문 사회로 진행된 이날행사는 金容彩회장의 인사、李康郁(국제로타리366지구총재·변호사)동문의 축사、업무보고(高홍석부회장) 감사보고(黃在萬동문) 가있었으며、이어 東國中興과지부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4개항의 새해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馬山蔚山지구등 인접지구 동문은 물론 여성동문도 40여명이나 참석、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날 東國人의 밤은 前회장 朴東昊동문을 비롯 在釜東國會長 邊永傑、釜山地檢 申相斗부장검사、中區廳長 金萬淵동문등의 장기자랑과 함께 여흥을 즐기며『친목과 화합과 단결』『사랑과 우애』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釜山지부「東國人의 밤」에서 칵테일을 즐기고있는 동문들。

◇경북·대구지부「82동국인의밤」에서 50년대동문들이 부부동반으로 합창을 하고있다。

大邱·慶北支部

慶北·大邱지부(회장=전태성)「東國人의 밤」행사가 구랍21일 오후7시 시내 만리장성에서 70여쌍 1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장기자랑 행운권추첨순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새로 제작한 경북대구지부會旗 인수인계에 이어 지부발전에 공이 큰 최정석 강기원 김덕일 구교찬 김종원 최종기동문등 6명에게 감사패를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새해사업계획으로 영남지역 各支部·支會長간담회、영남지역체육대회、춘추계야유회、支部기금조성등을 결의한뒤 칵테일파티를 즐겼다。

◇행운상품및 기념품 찬조동문 명단=구교찬 이종기 최일우 박달식 정궁모 김상준 최종기 오남수 이구영 이회선 김덕일 박만정 홍기익 박종득 최지석 옥철홍 이준석 김상철 정광천 전태성 김경원 하영태 김종원 이경건

仁川支部

仁川支部(회장=孟殷在) 送年모임이 구랍28일 오후6시30분 시내 신포동 화선장에서 金殷夏동문을 비롯、1백여명의 동문이참석한가운데 열려 변함없는 東友愛를 나눴다。

이날 회원들은 오랫만에 만나 회포를 풀며 지부活性化와 모교발전을위해 협력할것을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강진원사무차장이 출장、본회및 모교현황등을 소개했다。

忠南支部

忠南支部(회장=權五旭) 82년도 정기총회가 구랍11일오후5시 大田관광호텔2층에서 열려 신임지부장에 任千準(54·국문·東國書林대표)동문을 선출했다。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에 이어 지부조직 활성화、동문찾기운동、충남지역관내 연합체육대회개최등을 논의하는 한편、지부발전에 공이 큰 金鏞炫(61영문) 鄭敬和(62법학) 孫文壽(71경영) 동문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하기도 했다。

▲고문=權五旭(68행원·삼양개발(주)사장) ▲회장=任千準 ▲부회장=具壽榮(49전문·충남대교수)、朴鍾允(59경제·국제특수금속(주)사장)、鄭敬和(62법학·화성상사대표)、申允杓(65행정·韓田大 법정대학장) ▲간사장=孫文壽(71경영·대양화학 대전직매소장)

全北支部

全北지부(회장=金三龍) 정기총회겸「82년 東國人의밤」이 구랍29日 전주시내 中央洞「백번집」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全容夏총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全北支部발전에 기여해오다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李元植(前全北道教委 부교육감)、朴柱寅(前전주地檢부장검사)、鄭求徹(前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장)、金元福(前조달청 전북지청장)등에게 기념패를 증정하는 한편、支部발전을 위한 토의사항에 이어 여흥을 즐겼다。

唐津支會

唐津郡지회(회장=南常佑) 정기총회겸 82년 東國人의 밤이 구랍22일 오후6시 당진읍 소재 제일예식장에서 열렸다。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모임은 신년주요사업계획 논의에이어 파티와 장기자랑으로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긴밀히했다。

東綠會

東綠會(회장=鄭在哲) 82년 송년회가 구랍 23일 오후6시 신라호텔 2층 다이나스티홀에서열렸다。

40여쌍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은 鄭회장人事 祝賀牌수여 장기자랑순으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張亨植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金東益 前총장에게 長壽牌、文泰植(오산공장擴張)洪鳳來(한서빌딩준공) 金聖涉(대한학장취임) 柳周馨(혜전전문대모방회장취임) 鄭寬溶(청와대司正首席비서관취임) 동문에게 각각 축하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회원들은 李殷載동문 사회로 장기자랑에 이어 선물교환순서도 가졌다。

東女會

東女會(회장=金貞愛) 送年모임이 구랍21일오후6시30분 시내영동 삼정호텔에서 30여명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崔載九명예회장등이 특별초대되었으며、회원들은 지나온 한해동안의 活動을 반성하고 새해에는 보다 알찬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法曹人會

法曹人會(회장=金東正) 送年모임이 구랍 21일 오후7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舊대한일보뒤 금강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金榮九간사장 사회로 金東正회장의 人事、회무보고、신년사업 논의순으로 진행되었으며、본회 康鎭元사무차장이 同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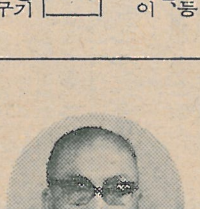
東亞製藥

東亞製藥동우회 82送年會가 구랍 23日오후7시 쌍룡빌딩뒤 설미옥 2층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했다。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年會費단체납부、지회活性化등을 논의했으며、본회 康鎭元사무차장으로부터 본회現況을 청취한뒤 연회를 즐겼다。

2個月間 海外布教활동

徐京保동문



▲徐京保(51불교·一鵬禪院長)=지난해11월말 駐佛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초청으로 渡佛、파리에설립된 2개의 一鵬禪院현판식을 비롯、서예전2회、강연회 5회、법회및 수계식 4회를 갖는등 두달동안에 걸친 해외포교활동을 끝내고 지난1월19일 귀국했다。

徐동문은 在佛 韓佛문화교류공로로「파리」와「니스」市로부터 文化徽章을 받기도했다。

귀국길에는 美 캘리포니아 국제大에서 명예총장추대를 받았으며、샌디애고市 퍼시픽인터내셔널大에서는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教授動靜

▲李丙疇(文科大 국문학과)=중국어版「杜詩諺解」간행계약을위해 1月하순경渡中예정。

▲金正梅(文科大영문학과)=동남아교육문화교류차 1月6日 渡中。

▲閔丙天(법정대학장)=1월10~29일까지 구라파각국을 순방하면서 교육연수및 교육계를 시찰。

▲朱宗桓(농과대)=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에 피선。또 朱교수는 제2회 한국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덕중(法政大사회개발학과)=구랍15日 美인류학대회 참가및 학술연구차渡美

▲洪庭植(佛教大불교학과)=1월16일~25일까지 종립학교교장단 학술순회단과함께 渡日

▲吳國根(文科大영문학과)=구랍20일부터 학술자료수집차 인도및 동남아를순방

▲Steiner(E.W大 교환교수)=구랍18일 Formosa연구차 홍콩으로 떠남。

▲任敎姬(문과대사학과)=구랍13일 한국민속학사 영문관집필차 渡美

▲朴榮吉(법정대법학과)=1월5일 박사학위 논문 작성차 渡比。

▲桂明善(경상대 경제학과)=구랍11日 학술연구차 渡美。

▲金在功(공과대 전자공학과)=구랍13일 冬季방학중 실험기기 사용및 연구실이용을 위해 渡英。

▲權鎭東(공과대 토목공학과)=1月7日 교육연수및 시찰차 渡英。

▲金直泰(공과대 화학공학과)=1月7日부터 유럽의 교육문화계 시찰。

▲朴先榮(학생처장)=구랍18일 대학생해외파견단 인솔단장으로 도일。

▲金容喆(61국문·小說家·동대신문편집국장)=첫 창작집「겨울便紙」출판기념회를 구랍21일 오후6시 모교 다향관에서 가짐。

移轉·開業

▲崔熙天(51·정치·관세사)=강남구논현동62~10 金洋빌딩에 中央合同關稅事務所를 개설、각종輸入통관 절차대행업무를 시작했다。전화 (557)1716·2915

▲金東吉(61경제·유신토건사장)=영등포구신길7동1329번지로 사무실이전。

▲朴性協(51사학·송림제재소대표)=인천시남구주안동 1426~23호로 이사。

▲趙炳化(70경영·金平產業사장)=중구삼각동115경기빌딩1403호로 사무실을 이전。

▲禹相亨(69경제)=여의도 충무빌딩4층에 태평양당구장 개업。

▲林信喆(66입학·신영증권 光化門지점장)=사무실을 종로구 인사동194~4 하나로빌딩 4층으로 이전。

▲朴性茂(68정외)=관악구 신림동614의18번지에서「독일제과점」을 개업。

▲金信柱(59정치·한일관세사무소 상무)=도봉구 상계2동169의83호로이사

▲韓陽洙(65국문·세연문화사)=동대문구 답십리동465의2 태양아파트 마棟401號로 이사。

出入國

▲崔載九(52국문·본회명예회장)=지난해11월16일부터 약2주일간 日本불교계를 시찰。

▲文泰植(49전문·아주산업사장)부회장=1월18~22일까지 업무차 渡日。

▲柳周馨(57농학·혜전전문대학장)=1월10~30일까지 20여일간 日本·홍콩·美國등지를 순방。

▲黃明秀(53정치·국회의원)=미국무성 초청을 받아 지난 1월16일 KAL기편으로 출국、약20일간 체류예정。

▲朴完一(61불교·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장)=1월21~25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韓·홍콩·日 불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王豹淳(55정치·송곡여고교장)=지난해11월30~12月31日까지 私立中高교장 해외시찰단으로 구라파 各國을 순방。

▲尹昌鎬(55영문·中央大교수)=지난해12月초순부터 오는 2月20日까지 美洲각지역을 순방。

▲閔浩根(73경영·한국주택은행전산실)=오는2月17日 호주移民次 出國。

▲尹鎰均(69행원·국제공항관리공단이사장)=구랍4~12일까지 1주일간 印度뉴델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협의회 會議에 참석。

▲李衍澤(61법학·국무총리실제1행정조정관)=구랍6~16일까지 국무총리 공식수행원으로 콜롬비아·페루·칠레등 南美3개국을 순방。

▲李昌圭(65경영·동일교역전무이사)=1월16~25일까지 업무차 渡日。

▲鄭龍談(61경제·한국투자신탁영동지점장)=1월21일~2월3일까지 보름간 日本·대만 싱가폴 東南亞금융시장 시찰。

대한石油協會부회장 취임

劉 時 鍾동문

▲劉時鍾(80행원)=해군소장 예편과함께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에 취임했다。

劉동문은 해병○사단장을 역임했으며, 본회浦項지회 명예회장으로추대된바있다。

〈警察人事〉

치안본부 수사2과장에 榮轉

吉 육동문

▲吉 堉(72행원·경무관)=치안본부 감식과장에서 수사 2과장으로 轉任。

지난80년 경무관에 승진한 吉동문은 온양·용산경찰서장、서울시경 경무과장、부산시경 부국장등을 역임했었다。

治安本部 감식과장으로 부임

李 鍾 國동문

▲李鍾國(57영문·경무관)=치안본부 감식과장으로부임。

경찰간부11기생으로 지난81년 경무관에승진한바있는 李동문은 서울鍾路·龍山경찰서장을 비롯、치안본부 정보2계장、해양경찰대관리부장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市警 정보과장으로 轉任

金 鍾 一동문

▲金鍾一(58법학)=성북경찰서에서 서울市警정보과장으로 영전。

金동문은 치안본부 정보과、청와대민정담당등 정보업무에 밝으며、경북 군위경찰서장·국회경비대장등을 역임했다。

충북 鎭川경찰서장으로

權 重 聲동문

▲權重聲(49전문)=지난연말 총경승진으로 진천경찰서장에 정식 부임했다。

본회 清州지부장을 맡아오고 있기도한 權동문은 충북도경 경비계장、청주경찰서 경무과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7月 진천경찰서장직무대리로 부임했다。

충남扶餘경찰서장에 영전

李 鍾 範동문

▲李鍾範(63법학·총경)=부여경찰서장에 취임。

서울시경 공보계장에서 지난해 1월 총경에 승진한 李동문은 충남도경 경비·대공과장을 맡기도 했다。

全北道警 作戰課長으로

金 大 圓동문

▲金大圓(70경행)=지난연말 총경승진으로 全北道警작전과장에 부임했다。

모교 경찰행정학과 출신가운데 總警1호를 기록한 金동문은 관악경찰서 경비과장·종로경찰서 정보과장·서울시경 경호계장등을 차례로 역임한바 있다。

濟州道警 수사과장轉任

韓 公 任동문

▲韓公任(82행원·총경)=제주도경 수사과장으로 전임

韓동문은 제주경찰서장등 일선치안책임자로 활약해 왔었다。

제주 西歸浦경찰서장 부임

玄 商 鍾동문

▲玄商鍾(77행원·총경)=제주서귀포경찰서장에 부임했다。

玄동문은 제주도경 경비·통신과장、정보과장등을 역임해왔다。

서울市警산하警正급 이동

▲洪承遠(58경제)=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

▲裵熙善(65법학)=서대문경찰서수사과장으로

▲金昌先(72대원)=구로경찰서 정보과장으로

美獨立祝祭 總委員長에

李 俊 九동문

▲李俊九(51경제)=오는83년7月4日 워싱턴에서 벌어질 美독립기념축제 全國行事 총위원장으로선임되었다。

사단법인 독립기념행사위원회는 최근이곳 쇼어햄 아메리카나호텔에서 실업인·정치인·체육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李동문을 총위원장으로 지명한것이다。

李동문은 美와싱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오고있으며 세기의 철권 무하마드알리의 태권사범으로도 널리 알려진바있다。

關稅公務員 교육원장으로

朴 珍 秉동문

▲朴珍秉(58경제)=關稅廳 관세공무원 교육원장에 부임했다。

朴동문은 감시국 심리과장 大邱·金浦稅關長을 거쳤으며 지난해 국방대학원을 수료하기도 했다。

交通部안전감사관에 榮轉

金 光 得동문

▲金光得(62법학)=교통부 안전감사관으로 轉任되었다。

지난 연말 우수공무원으로 紅條勤政勳章을 받기도한 金동문은 해운항만청 총무과장 재무국장 선원선박국장등을 역임했다。

大田지방兵務廳長에 부임

金 容 相동문

▲金容相(71행원)=大田지방 병무청장으로 부임했다。

金동문은 국방부인사과를 거쳐 全南·京畿지방병무청장등을 차례로역임했다。

서울江南敎育區廳長으로

朴 炳 용동문

▲朴炳용(59법학)=서울시교육위원회강남교육구청장으로 전임되었다。

朴동문은 문교부 사회과장등을거쳐 부이사관승진으로 부산대학교사무국장에 부임한바있다。

〈遞信部〉

▲金卓中(54경제)=서대문우체국장으로

▲田英毅(56사학)=우정연구소 조사과장으로

▲南明鎭(56정치)=부천우체국장으로

〈鐵道廳〉

▲金潤經(56정치)=영등포역장에서 서울열차 사무소장으로

▲金龍浩(56법학)=부산지방철도청관리과장에서 서울지방철도청 운수과장으로

同門동정

本人의 近況이나 주위同門들의 諸소식등 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바랍니다。

▲趙南遠(58경제)=차량국공장관리과장에서 경리국 물동계획과장으로

▲李相元(60영문)=경리국 물자운영과장으로

韓一銀行국제업무부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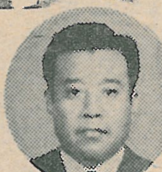
朴 滿 天동문

▲朴滿天(55영문)=한일은행국제부장에서 同국제업무부장으로 자리를옮겼다。

국제영업부장도역임、은행내국제관계업무베테랑으로 꼽히기도한 朴동문은 포항、부산남·영등포·대구·서울중부지점장등일선점포도 두루거쳤다。

〈國民銀行〉

종로지점장 李 鍾 범동문



▲李鍾范(60법학)=서교동지점장에서 종로지점장으로 轉任。

李동문은 인사부과장 水原·中央廳지점장 등을 차례로역임했다。

구의동지점장 羅 광 연동문

▲羅광연(60경제)=잠실지점장에서 구의동지점장으로 轉任。

청량리지점장 崔 俊 鎬동문

▲崔俊鎬(63경제)=안암동지점장에서청량리지점장으로 轉任。

崔동문은 혜화동지점차장、저축부차장、제주지점장등을 역임했다。

자양동지점장 鄭 國 立동문

▲鄭國立(61정치)=경기도양평예금취급소장에서 자양동예금취급소장으로 轉任。

鄭동문은 증권대행부차장、일동출장소장등을 거쳤다。

住宅銀 東京사무소 調査役에

鄭 在 皓동문

▲鄭在皓(舊名=柄彩·62정치)=한국주택은행 東京사무소조사역으로。

鄭동문은 감사실 검사역、영업·부차장등을 역임했다。

〈韓國投資信託〉

▲姜錫永(72경영)=청량리지점 차장에서 本社총무과장으로。

▲朴貞仁(73경제)=국제과장에서 기획과장으로。

▲孫世明(72법학)=大田지점차장으로。

▲李麒煥(71상학)=영등포지점대리에서 청량리지점 차장으로。

〈東亞제약〉

▲이용우(83정외)=신입사원으로 入社

▲한용우(83정외)= 〃

▲임태균(83농경)= 〃

▲권태준(83농경)= 〃

▲강한수(83농학)= 〃

▲현재근(83농학)= 〃

聯合通信 文化과학部長에

申 瓚 均동문

▲申瓚均(61국문)=연합통신 부서개편에 따라 문화부장에서 同문화과장부장이 되었다。

문화재전문위원이기도한 申동문은 연합통신 前身인 합동통신 文化部長등 언론계중진으로 우리 文化창달에 기여해오고 있다。

土開公 서울支社長에 부임

沈 勝 雄동문

▲沈勝雄(61경제)=한국토지개발공사서울지사장에 취임했다。

沈동문은 전신인 土地金庫감사실、차장과 公社업무부장등을 역임했다。

保險公社 보험사업부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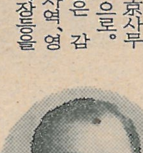
金 勝 濟동문

▲金勝濟(68상학)=한국보험공사 보험사업부장으로 전임。

金동문은 同공사 보험사업부차장、총무부장등을 역임했다。

道路公社홍보실장에 榮轉

金 在 鎭동문



▲金在鎭(63경제)=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으로 전임。

金동문은 감사과장、원주도로관리 사무소장등을 역임했다。

대한通運충주지점장昇進

張 甲 洙동문

▲張甲洙(64경제) 대한통운(주) 충주지점장으로 영전되었다。

張동문은 同社 재산관리과장、업무부차장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본회 통운東亞그룹지회 발전에 남달리 헌신해온바있다。

太古宗中央宗會의장 被選

崔 泰 鍾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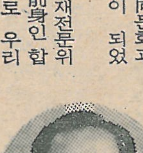
▲崔泰鍾(59불교·송정리淨光高교장)=한국불교태고종제50회 정기中央총회에서 의장에 피선。

太古宗종회부의장 李 在 福동문

▲李在福(43불교·大田보문고校長)=한국불교 태고종中央宗會부의장에 피선。

PEN클럽 副會長에 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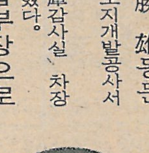
李 根 三동문



▲李根三(52영문·서강대교수)=국제PEN클럽 한국본부 제29차 정기총회에서 同부회장에 被選되었다。

한국文人協부이사장 피선

黃 命동문



▲黃編東(筆名=黃命·55국문·詩人)=한국文人協會 제22차정기총회에서 同부이사장에피선되었다。

時調文學통해 文壇데뷔

朴 相 文동문

▲朴相文(66국문)=계간시조전문지「시조문학」1982년 겨울호를 통해 문단에 데뷔했다。

추천완료작은「成道寺」였으며 시조문학 1982여름호에서「깊은 情」으로 1회추천을 받은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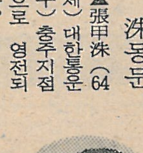
日東海大서 工博학위취득

金 榮 順동문

▲金榮順(69화학)=일본 東海大學서「畵像情報재료의 物理化學的연구」란는 論文으로 工學博士학위를 받았다。

한국문학 作家賞 수상

李 炯 基동문



▲李炯基(56불교·시인·부산여대교수)=한국文學社가제정한 제9회한국문학 작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詩「바다」이며 상금은 1백만원。

〈우수公務員 훈장포상〉

▲宋仁憲(58경제·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장)=우수공무원 綠條勤政勳章을 받음

▲金瑄喆(62법학·법원행정처)= 〃

▲鄭亨鎭(62경제·문교부대학국)= 〃

새마을훈장노력장 金 銀 九동문

▲金銀九(56국문·KBS업무국장)=새마을훈장 노력장을 받음

榮進·轉補

▲金鍾赫(55영문)=어유중학교교장으로。

▲金麟圭(56정치)=연천북남중교장으로。

▲李周坤(56영문)=전곡고등학교교장으로

▲兪海憙(61수학)=수도중학교교장으로

▲金윤煥(64국문)=평택군팽성읍소재 청담중학교장으로。

▲李根佑(65행정)=평택군팽성읍소재 학교법인청담학원 법인사무국장에 부임

▲鄭晙和(법학)=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국회도서관 열람과장으로 복귀。

▲郭正勳(63경제)=산림청육종연구소서무과장으로。

▲李均衡(65정외)=관세청 관세감독관실 감찰과로。 李동문은 釜山·金浦·서울稅關등을 거쳤다。

▲金思興(62법학·체육부체육진흥국 체육시설과장)=國防大學院 入校。

▲李熙珏(53법학·국회도서관자료발간과장)=국방대학원 入校。

▲李杓周(63농학)=서산군삼업조합 전무로。

▲張雄助(64경영)=太平洋化學연수차장에서 홍보실 차장으로。

▲洪月杓(69법학)=새마을중앙본부부속실로。

▲孫良好(74불교)=월간「法輪」편집국장직을 사임하고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군종법사단군종국장으로

▲李秉宗(74경행)=KAL서울여객지점하이아트호텔 매표소로。

▲洪性勇(78통계)=한국상업은행여의지점으로。

▲朴得坤(80경영)=한일은행 성동지점에서 국제영업부로。

結婚

▲柳根昌(50전문·한국토지개발공사 社長)=구랍29일 수운회관에서 딸 결혼。

▲洪淳池(52정치·퍼시픽콘트롤즈社長)=1월29일정오 반포 뉴코아예식장에서딸결혼。

▲梁昶植(78행원·국회의원)=1월22일 오후1시 명동YWCA에서 장남 결혼。

▲田浩鍾(52영문·모교文理大교수)=구랍11일오전11시 뉴코아예식장에서 딸결혼

▲鄭求徹(59정치·신용보증기금관리역)=구랍18일오후2시 국민은행연수원강당에서 장녀결혼。

▲趙秉成(52경제·안국화재보험 大一대리점대표)=구랍17일 오후2시 서소문교회에서 二女결혼。

▲宋喆根(78體敎·대림산업)=구랍19일 오전10시30분 행복예식장2층에서 本人화촉。

▲韓春鎬(78수학·강원대교수)=구랍4日오후1시 춘천귀빈예식장에서本人화촉。

▲安澈奐(52경제·대한통운사장)=지난해11월19일 정오 2女 연희孃 결혼。

▲朴龍龜(53사학)=지난해 11월24일오후1시30분 明洞YWCA강당서 長女 明善孃 결혼。

▲金澤根(79국문·경향신문편집부)=지난해 11월21일 정오 강남구신사동 그랜드예식장에서 本人화촉。

▲朴喜允(82회계·한국상업은행국제영업부)=2월1일 정오 행복예식장에서 本人화촉。

▲鄭晙和(59법학·국회도서관열람과장)=1월8일 오후2시 수운회관에서 장남결혼

▲金炳훈(60국문·日刊스포츠 편집부차장)=1월9일 오후2시 서울예식장에서 장남결혼。

訃音

▲趙明基(31中佛·前모교총장)=1월5일 모친 喪

▲李運永(70농학·신용보증기금경영지도부과장)=구랍17일 부친 喪

▲金照明(74행원·인창한의원)=구랍17일 부친 喪

新入生 4천2백51명 선발

首席合格에 金準錡(학력고사 3백23점)군차지

◇金準錡군

1983학년도 신입생합격자가 예정보다 2일앞당겨 지난19일 발표되었다. 총모집인원 4천2백51명(경주분교포함) 모집에 1만2천2백49명이 응시, 2·88대1의 경쟁률을 나타낸 이번입시에서 영예의 수석합격은 경주대한의예과를 지원한 金準錡(大邱心印高)군이 차지했다. 首席을 차지한 金군은 4백85·7만점에 4백62·2점(학력고사 3백23점)을 얻었다.

이번 전기대학入試는 작년에 비해 학력고사성적이 20~30점 상회하는 바람에 예년보다 더욱 눈치작전이 성행, 안개·도박入試로까지 불리어지는등 온갖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母校는 비교적고른 지원과 함께 합격자점수대도 안정된 분포를 나타냈는데, 최고경쟁률을 나타낸학과는 11·5대1의연극영화학과였으며 미달학과는 하나도 없었다.

이번 신입생선발은 학력고사 70%, 내신성적 30%비율로 배점하여 전형했으며, 이들 합격자들에 대한 입학식은 오는 3월2일 거행된다.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없이 합격여부의 확인에 부산한 수험생들.

◇1983학년도 入試競爭率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	지원율
불교대	불교	52	112	2·2
	인도철학	26	59	2·3
	선학	26	59	2·3
	미술	52	150	2·9
문과대	국어국문	52	149	2·9
	영어영문	65	199	3·1
	독어독문	39	113	2·9
	일어일문	39	84	2·2
	사학	39	119	3·1
	철학	39	120	3·1
	국민윤리	52	148	2·8
	연극영화	39	450	11·5
이과대	수학	52	89	1·7
	물리	52	83	1·6
	화학	52	98	1·9
	통계	52	157	3·0
법정대	법학	78	203	2·6
	정치외교	39	115	2·9
	행정	52	174	3·3
	경찰행정	39	86	2·2
	사회개발	39	98	2·5
경상대	경제	52	255	4·9
	무역	52	312	6·0
	경영	61	277	4·5
	회계	60	196	3·3
	전자계산	52	180	3·5
농과대	농학	39	93	2·4
	임학	39	90	2·3
	농업생물	39	116	3·0
	농업경제	39	68	1·7
공과대	전자	52	114	2·2
	전기	39	85	2·2
	토목	52	168	3·2
	건축	52	124	2·4
	화학	39	83	2·1
	식품	46	101	2·2
	산업	39	151	3·9
사범대	국어교육	52	153	2·9
	국사교육	65	140	2·2
	교육	52	96	1·8
	지리교육	52	225	4·3
	수학교육	58	82	1·4
	가정교육	52	129	2·5
	체육교육	52	226	4·3
2부대	영어영문	65	230	3·5
	경제	65	194	3·0
	무역	104	457	4·4
	경영	121	538	4·4
	전자계산	104	331	3·2
	회계	96	280	2·9
	산업	78	136	1·7
경주분교	불교미술	52	64	1·2
	국어국문	130	252	1·9
	영어영문	169	330	1·9
	일어일문	65	174	2·7
	중어중문	52	158	3·0
	한국사학	52	170	3·2
	법학	117	326	2·8
	행정	78	155	2·0
	경제	78	177	2·2
	무역	117	308	2·6
	경영	111	330	3·0
	회계	111	408	3·5
	환경조경	110	233	2·1
	한의예	52	189	3·6
	수학교육	104	310	3·0
	가정교육	52	101	1·9
		52	69	1·3
총계		4,251	12,249	2·88

「金銅…」등 2점 國寶指定

博物館소장 4점은 寶物로

모교 博物館이소장한「金銅六角舍利函」「寶협印石塔」등 2점이 구랍7일 文化公報部로 부터 國寶208·209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또한 「紺紙銀泥菩薩善戒經」卷八(31cm×13m)「敏哀大王石塔舍利壺」(높이8·5cm) 蠟石三尊佛碑像(높이32·5cm)「正祖大王筆芭蕉圖」(84·2×51·3cm)·正祖大王筆菊花圖(81×51·3cm)등 5점이 보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모교 박물관에소장중인 國寶는 3점, 보물은 8점으로 늘어났다.

行政考試 2명

金明龍·여희광君등

총무처시행 제25회 행정고시에 金明龍(81행정)여희광(행정4년)군등 2명이 합격했다.

모교야구부 코치에 金鍾佑씨 새로부임

모교야구부 신임코치에 前대구상고야구부감독 金鍾佑씨가 부임했다. 前金學龍코치는 광주진흥고교감독으로 전임되었다.

金宗圭동문 도서관에册기증

三省出版社사장 金宗圭(64경제)동문이 지난해12월초 「세계의名畵」를 비롯 213권의 도서를 모교도서관에 기증했다.

李瑄根前總長 別世

모교 제8대총장을 역임한霞城 李瑄根박사가 지난 9일밤 강남구 논현동 자택서老患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초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故 李총장은 우리나라사학계를 이끌어온 원로사학자로「韓國最近世史」「花郞道硏究」등 24종36권의 저서를남겼다.

故李총장의 유해는 지난13일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급자동차정비공장·견인차주야대기
吾星工業社
영등포문래동정비단지 635-2828·3651~3

東國의 傳統

〈31〉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物理學 〈2〉

지난호에서는 物理學科의 發展史 및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제 여기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研究課題 및 現在 進行中인 研究計劃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本校 物理學科가 現在까지 他學校나 研究所에 비해 자랑하고 싶은것이 있다면 他大學이나 研究所에 비해 훌륭한 實驗施設이나 量的으로 많은 教授陣을 保有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우리실정에 맞는 독창성있는 實驗裝置를 써서 연구에 임해 왔다고볼수있다.

그중 하나가 先進富國에서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 高에너지 粒子 加速器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있는 반면에 本 物理學科에서는 저에너지 粒子加速器를 利用한 연구가 미진한 점에착안하여 超小型 粒子加速器를 제작하여 이 가속기를써서 物質內에 低에너지 이온을 注入시켰을때의 物理的性質에 관한 연구결과를 韓國 物理學會에서 여러차례 發表하여 주목을 끌었다.

半導體 太陽電池개발 참여

表面分析장치 첫導入 기대커

超小型粒子 加速器 제작活用

그뿐 아니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태양전지 개발에도참여하여 특히 생산단가가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재현성이좋은 태양전지의 제작방법인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좋은결과를 얻은 바 있다。그외에 반도체및 절연체내에 생성된 불순물준위 연구에서도 Admittance Spectroscopy방법과 특히 TSC (Thermally Stimulated Current) 방법은 본교를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연구소및 대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있다는 것은 본 물리학과의 큰발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설치중에있거나 금년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OECF 차관 실험기자재가 Ful 가동되는 83년은 本 물리학과로서는 또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것이다。이 기기들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물질 내부의 원자의 운동과 금속이나 합금의 磁氣的 성질및 고체물리학과 생물물리학등 다방면의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Mossbauer Spectrometer가 도입됨에 따라 고체물리학 분야의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아울러 영하2백63도C까지 極低溫을 유지 할수 있는 Liquid He displex 장치는 저온에서의 반도체및 超傳導體의 電氣的, 光學的 특성을 연구할 수 있어 低溫物理學 분야연구를 시도코저한다。OECF 차관도입기재 Item중 국내 여러 연구소및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表面分析裝置는 컴퓨터로 측정결과를 data화 할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험 장치이다。특히 이 장치는10(-11)Torr의 超高眞空(Ultra high vacuum)下에서 금속, 반도체등 모든 固體의 표면의 불순물 상태와 그성분 분석이 가능한 Auger및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와 thin film用 X-ray라 할수있는 LEED (LowEnergy Electron diffractmeter)가 부착되어 있다。무엇보다도 초고진공하에서 결정을 성장시킬수 있는 진공증착장치가 있어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태양전지및 반도체 Laser소자로 쓰이는 Gas연구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이 표면분석장치는 국내에서는 본 물리학과가 처음으로도입하는 장치이다。

또한 이 장치는 각종 금속공업분야의 표면분석 연구와 TR IC및 LSI등의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기여를 할것으로 생각된다。특히 반도체 재질개발연구는 80년대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는 분야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이 장치가 정상가동되는 83년도부터는 本校 물리학과가 도약할 수 있는 학과로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않는다。

謹賀新年

學校法人 東國學園
理事長 朴淇宗
理事 金金鐸 吳仁甲
高秉完 徐炳坤
黃壽永 金甲洙
崔載九 洪鳳來
監事 朴容植 朴忠煥
事務局長 趙在浩

東國大學校
總長 黃壽永
大學院長 李東林
行政大學院長 鄭允武
經營大學院長 錢昌源
教育大學院長 崔世和
佛教大學長 李智冠
文理科大學長 閔泰鷄
法政大學長 閔丙天
經商大學長 韓　炫
農科大學長 金興培
工科大學長 金直泰
師範大學長 金長好
二部大學長 金鍾遠
慶州大學長 金仁鴻
基礎課程部長 金鎔貞
總務處長 趙熙榮
教務處長 金翔圭
學生處長 朴先榮
企劃室長 河德模
圖書館長 南都泳